

제51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연결)

2014년12월31일 현재

(단위:원)

계 정 과 목	금 액	계 정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유동자산	108,556,095,950	I. 유동부채	83,211,593,242
1. 현금및현금성자산	7,081,598,313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31,873,511,073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79,917,381,866	2. 단기차입금 등	50,145,174,030
3. 기타유동금융자산	1,204,597,818	3. 당기법인세부채	1,017,577,071
4. 재고자산	17,000,811,263	4. 기타유동부채	175,331,068
5. 기타유동자산	3,351,706,690		
II. 비유동자산	122,479,636,174	II. 비유동부채	30,585,900,867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6,144,543,436	1. 장기차입금	10,000,000,000
2. 관계기업투자주식	62,838,485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28,788,000
3. 유형자산	112,699,429,200	3. 퇴직급여채무	763,452,382
4. 무형자산	3,572,825,053	4. 이연법인세부채	19,293,660,485
		부 채 총 계	113,797,494,109
		자 본	
		I.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117,150,654,886
		1. 자본금	3,276,000,000
		2. 자본잉여금	5,406,291,440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241,143,603
		4. 기타자본항목	(230,422,985)
		5. 이익잉여금	107,457,642,828
		II. 비지배지분	87,583,129
		자 본 총 계	117,238,238,015
자 산 총 계	231,035,732,1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31,035,732,124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5년 03월 27일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집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5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도원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걸

제51기 결산공고

재무상태표 (별도)

2014년12월31일 현재

(단위:원)

계정 과 목	금 액	계정 과 목	금 액
자 산		부 채	
I . 유동자산	64,319,846,112	I . 유동부채	42,897,550,864
1. 현금및현금성자산	5,374,574,175	1. 매입채무및기타지급채무	12,998,151,721
2. 매출채권및기타수취채권	42,978,652,446	2. 단기차입금 등	28,906,668,190
3. 기타유동금융자산	498,061,000	3. 당기법인세부채	898,973,098
4. 재고자산	12,878,651,815	4. 기타유동부채	93,757,855
5. 기타유동자산	2,589,906,676		
II . 비유동자산	114,836,924,612	II . 비유동부채	28,099,849,031
1. 기타비유동금융자산	4,577,398,620	1. 장기차입금	10,000,000,000
2. 종속기업투자주식	18,788,084,064	2. 기타비유동금융부채	551,512,000
3. 관계기업투자주식	284,725,000	3. 퇴직급여채무	344,064,807
4. 유형자산	88,598,790,928	4. 이연법인세부채	17,204,272,224
5. 무형자산	2,587,926,000		
		부 채 총 계	70,997,399,895
		자 본	
		I . 자본금	3,276,000,000
		II . 자본잉여금	5,406,291,440
		III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43,784,000
		IV . 기타자본항목	(124,967,000)
		V . 이익잉여금	98,258,262,389
		자 본 총 계	108,159,370,829
자 산 총 계	179,156,770,724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79,156,770,724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15년 03월 27일

 **한국석유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병집

감사의견 : 위 재무상태표를 포함한 제51기 재무제표는 중요성 관점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도원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영걸